

한 · 중 FTA 발효 1년의 평가와 시사점

이규엽 무역통상본부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kylee@kiep.go.kr, Tel: 044-414-1233)

이준원 무역통상본부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jwlee2@kiep.go.kr, Tel: 044-414-1088)

정민철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연구원 (mccchung@kiep.go.kr, Tel: 044-414-1052)

차 례

1. 머리말
2. 상품교역 평가
3. 전자상거래 평가
4. 서비스·투자 평가
5. 정책시사점

주요 내용

- ▶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후 2016년 1~10월 동안 한국은 **중국 내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였고, 중국 지역별로 대(對)한국 수입비중이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
 - FTA 발효 이후에도 한국은 중국 내 시장점유율에서 1위를 유지하였고, 중국의 총 31개 지역 가운데 강서성, 광둥성, 절강성 등을 포함한 20개 지역(64.5%)에서 對한국 수입비중이 0.04~9.52%p가량 상승한 것으로 관측됨.
- ▶ 발효 후 전년대비 **품목수 기준으로 본 수출입 다양성이 개선**되었음.
 - 한국의 對중국 교역품목은 수출에서 총 품목수가 26개 증가하였고, 수입품목도 18개가 증가하여 품목수 기준으로 본 수출입 다양성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 발효 후 **농축수산업 전체 수출**은 전년대비 증가하여 한·중 FTA로 인한 수출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농축수산업의 對중국 총수출은 전년대비 7.8% 증가하여 같은 기간 동 산업 對세계 수출증가율 5.5%보다 높고, 발효 이전 對세계 5개년 평균증가율 1.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제조업 분야**에서는 한·중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가 인하된 품목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남.
 -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서 상위 50개(HS 8단위) 주요 품목 중, 중국측의 관세인하 혜택을 받은 품목은 총 27개이며, 이 중 15개 품목(55.6%)에서 세계적인 무역둔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실적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 **전자상거래**는 발효 후 한국의 對중국 **수출규모가 전년대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관측된 반면 수입규모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한·중 간 전자상거래 교역이 한국의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향후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양국간 협의와 인프라 확충 및 규제 협력 노력이 필요함.
- ▶ **서비스수지**는 한·중 FTA 협상개시 이후 **비약적으로 개선**되었는데, 이는 가공수지서비스 적자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수지 및 지적재산권사용료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 기인함. 향후 중국 서비스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중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조속히 개시할 필요가 있음.
- ▶ **비관세조치**에 따른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한·중 FTA 활용률 제고 및 FTA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 양국의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함.

1. 머리말

■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에 타결되었고,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음.

- 한국은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EU·ASEAN과 더불어 중국과 FTA를 체결한 첫 국가가 되었음.
- 발효 이후, 한·중 통상장관회담 및 공동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한·중 FTA 이행과정에 대한 점검 및 FTA 효과 극대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임.¹⁾

표 1. 한·중 FTA 발효 후 통상장관회담 및 공동위원회 주요 결과

회의	주요 내용
한·중 통상장관회담 (2016년 3월 18일)	- 한·중 FTA 서비스투자협상 조기 개시 - FTA 이행기구 연 1회 이상 개최 및 격상 추진 - 반덤핑 조치 등에 대한 원만한 해결 합의 - 품목변경, 세수우대 등 요구사항 반영 노력
한·중 차관급 경제공동위원회 (2016년 4월 21일)	- 한·중 FTA의 원활한 이행 및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등 양국 통상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 교역 투자 증진의 새로운 방안으로 추진 중인 한·중 산업협력단지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 (2016년 11월 23일)	- 해양환경, 수질관리, 대기오염 및 황사, 환경산업과 기술, 농촌환경 등 협력강화 방안 논의

자료: 한·중 FTA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보도자료를 참고로 저자 작성.

■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투자대상국으로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바, 한·중 FTA 발효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양국간 상품·전자상거래·서비스·투자를 중심으로 교역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점검함.

-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를 사용가능한 자료²⁾를 기반으로 발효 후 교역규모, 교역비중, 수출입 시장점유율, 수출입 품목의 다양성, 관세율인하에 따른 수출증감률 변화 등을 개괄적으로 점검하고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함.

2. 상품교역 평가

가. 한·중 간 상품교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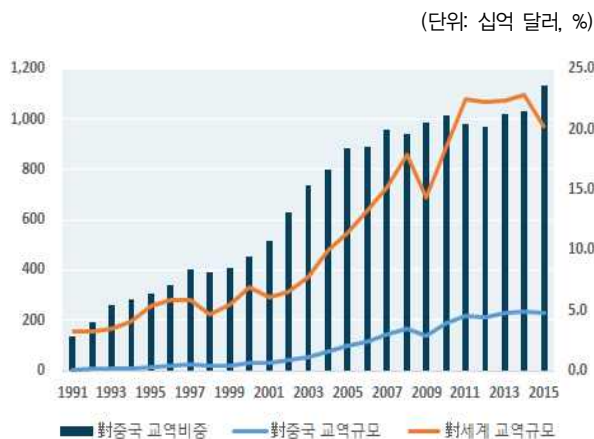
■ 한·중 간 교역규모 및 비중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한국의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폭 또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1) 한·중 FTA 이행체계는 공동위원회, 13개 분야별 위원회, 2개 소위원회, 1개 소작업반으로 이루어짐.

2) 본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은행, 중국해관통계, 통계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무역협회 등의 database를 활용하고, 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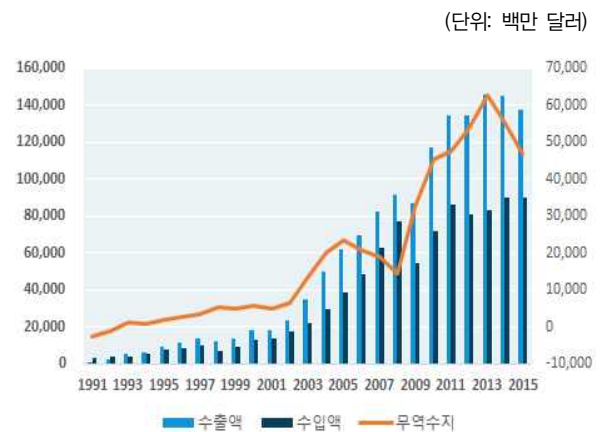
- 한·중 간 교역활동은 비약적으로 증대되어 최근 5년간(2011~15년) 평균 교역실적은 약 2,255억 달러 규모에 달함.
- 1990년대 초반 한국의 對세계 교역규모 대비 對중국 교역규모 비중은 5.1%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21.3%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함.
- 한국의 對중국 무역수지는 1992년 이후 흑자를 기록한 후 2015년까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그림 1. 한국의 對세계 및 對중국 평균 교역규모



주: 평균 교역규모는 해당 기간의 연도별 수출과 수입 합계에 대한 평균이고, 교역비중은 한국의 對중국 교역규모를 對세계 교역규모로 나눈 값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 저자 작성.

그림 2. 한국의 對중국 수출·수입·무역수지 추이



■ 산업별로 한국의 對중국 수출입 비중을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의 對중국 수출입 비중(對세계 제조업 수출입규모 대비)이 20%를 넘어섰으며, 지속적으로 증가세인 것이 특징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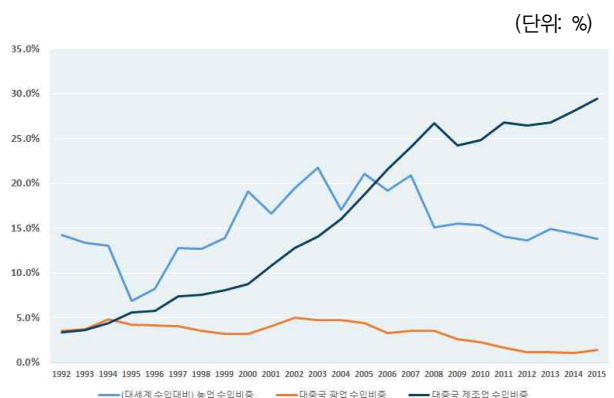
- 2000년대 이전에는 한국의 對중국 제조업 수출입 비중(對세계 제조업 수출입규모 대비)이 10% 미만이었으나, 그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5년 對중국 제조업 수출비중과 수입비중이 각각 25.5%와 28.9%에 달함.
- 한국의 對중국 농업 수출비중(對세계 농업 수출규모 대비)은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 농업 수입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임.

그림 3. 산업별 한국의 對세계수출 대비 對중국 수출비중 변화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 산업별 한국의 對세계수입 대비 對중국 수입비중 변화



나. 상품일반 평가

1) 한·중 FTA 발효 이후 총수출입 증감과 비중 변화

■ 한·중 FTA 발효 이후, 2016년 1~10월 동안 한국의 對세계 수출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對중국 수출입 역시 하락하였음.

- 세계경제 회복 둔화 및 중국 내수시장 약화를 포함한 대내외적·복합적 요인에 따라, 2016년 한국의 對세계 및 對중국 수출실적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한·중 FTA 발효 이후 한국은 중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였으며, 한국의 對중국 수입비중도 소폭 증가하였음.

- 2016년 1~10월 동안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시장점유율 1위(10.5%)를 유지하였음.

- 한국의 對중국 수출비중(=對중국 수출/對세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큰 변동이 없고 對중국 수입비중(=對중국 수입/對세계 수입)은 1%p 증가하였음.

2) 한·중 FTA 발효 이후 수출입 다양성 변화

■ 한·중 FTA 발효 이후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서 총 품목수가 26개 증가하였고, 수입에서 총 품목수가 18개 증가하여, 품목수 기준으로 본 수출과 수입 다양성이 소폭 개선되었음.

- HS 10단위 기준으로 전체품목을 분석한 결과, 한·중 FTA 발효 이후 對중국 수출품목 중 농림수산물(32개), 화학공업제품(30개), 철강금속제품(10개) 등이 증가한 반면, 對중국 수출 중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3), 기계류(9개), 전자전기제품(27개) 등은 수출품목이 감소함.

- HS 10단위 기준으로 전체품목을 분석한 결과, 한·중 FTA 발효 이후 對중국 수입 중 농림수산물에서는 수입 품목수가 5개 줄었으나, 對중국 수입 중 화학공업제품(20개), 기계류(22개) 등 제조업 분야에서 수입 품목수가 크게 늘어나 전체적으로 수입 다양성이 개선된 것으로 관측됨.

* 對중국 수출입 모두에서 화학공업제품과 생활용품은 교역품목 다양성 개선에 기여하였음.

표 2. 한국의 對중국 수출입 품목 다양성 변화

(단위: 개)

수출				수입			
산업	2015년 품목수	2016년 품목수	증감	산업	2015년 품목수	2016년 품목수	증감
농림수산물	691	723	32	농림수산물	1,199	1,194	-5
광산물	190	189	-1	광산물	258	268	10
제조업	5,729	5,724	-5	제조업	7,421	7,434	13
화학공업제품	1,319	1,349	30	화학공업제품	2,039	2,059	20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252	249	-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293	291	-2
섬유류	947	939	-8	섬유류	1,191	1,181	-10
생활용품	342	349	7	생활용품	479	481	2
철강금속제품	606	616	10	철강금속제품	741	739	-2
기계류	1,276	1,267	-9	기계류	1,467	1,489	22
전자전기제품	882	855	-27	전자전기제품	1,046	1,040	-6
잡제품	105	100	-5	잡제품	165	154	-11
수출총계	6,610	6,636	26	수입총계	8,878	8,896	18

주: 1) 품목수는 HSK(10단위) 기준으로 집계.

2) 품목 중 수출입 금액이 '0'달러인 품목은 제외.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서비스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한·중 FTA 발효 이후, 중국 지역별 수입비중 변화

■ 한·중 FTA 발효 이후 중국 지역별 對한국 수입비중(對세계 수입대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상당수 중국 지역에서 對한국 수입비중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한·중 FTA 발효 후 중국의 31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對세계 수입에서 對한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였으며, 對한국 수입비중 변화를 살펴봄.³⁾
- 2016년 1~10월 기간 동안 중국 수입시장에서 對한국 수입비중을 살펴보고 전년동기대비 비중의 변화를 점검함.
- FTA 발효 후, 중국의 총 31개 지역 가운데 강서성, 광둥성, 절강성 등을 포함한 20개 지역(64.5%)에서 對한국 수입비중이 0.04~9.52%p가량 상승한 것으로 관측됨.

표 3. 중국 지역별 對한국 수입비중 변화

(단위: 천 달러, %)

번호	중국성(省)	2015년 對세계 수입액	2016년 對세계 수입액	2015년 한국수입 비중	2016년 한국수입 비중	비중 변화
1	닝하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77,624	82,265	9.61	19.13	9.52
2	강서성(江西省)	872,703	906,096	5.66	10.07	4.41
3	산서성(山西省)	507,181	522,701	11.43	15.76	4.32
4	내몽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	645,169	649,642	1.18	3.48	2.30

3) 중국은 대만성을 포함한 23개의 성(省)과 5개의 자치구, 4개의 직할시, 2개의 특별행정구를 포함하여 총 32개 지역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만성을 제외한 총 31개 지역만을 포함함.

표 3. 계속

번호	중국성(省)	2015년 對세계 수입액	2016년 對세계 수입액	2015년 한국수입 비중	2016년 한국수입 비중	비중 변화
5	섬서성(陝西省)	1,287,082	1,141,911	13.17	14.90	1.72
6	요녕성(遼寧省)	4,629,399	4,125,163	8.34	9.57	1.23
7	호북성(湖北省)	1,283,000	1,175,265	7.74	8.87	1.12
8	귀주성(貴州省)	128,738	96,217	0.62	1.60	0.99
9	절강성(浙江省)	6,320,873	5,649,475	7.19	8.04	0.85
10	광둥성(廣東省)	30,788,357	29,475,462	10.09	10.92	0.83
11	사천성(四川省)	1,423,392	1,633,481	7.42	8.06	0.64
12	해남성(海南省)	917,276	694,417	3.11	3.71	0.60
13	청해성(青海省)	17,468	12,249	0.23	0.54	0.31
14	감숙성(甘肅省)	201,134	169,280	1.53	1.77	0.24
15	길림성(吉林省)	1,221,059	1,162,970	1.89	2.10	0.21
16	광서장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	2,381,958	1,809,187	0.86	1.06	0.20
17	흑룡강성(黑龍江省)	851,691	715,135	0.45	0.57	0.12
18	복건성(福建省)	4,491,361	3,859,810	5.56	5.61	0.05
19	호남성(湖南省)	821,125	682,466	6.05	6.10	0.05
20	하북성(河北省)	2,709,274	2,444,734	3.80	3.85	0.04
21	신강위구르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	1,253,397	929,920	0.09	0.07	-0.02
22	운남성(雲南省)	563,938	509,180	0.24	0.17	-0.07
23	강소성(江蘇省)	19,292,744	17,705,506	17.91	17.66	-0.25
24	티벳자치구(西藏自治區)	11,752	10,704	0.84	0.58	-0.26
25	중경(重慶)	1,550,378	1,491,044	13.11	12.75	-0.36
26	안휘성(安徽省)	1,187,085	1,164,833	6.56	5.91	-0.65
27	북경(北京)	7,235,453	6,844,875	7.94	7.01	-0.93
28	상해(上海)	19,416,140	17,924,926	8.71	7.23	-1.48
29	산둥성(山東省)	10,936,977	10,274,235	14.77	12.80	-1.97
30	천진(天津)	5,853,771	5,222,893	16.79	14.35	-2.44
31	허난성(河南省)	2,588,808	2,281,750	24.84	18.99	-5.84

자료: 한국무역협회의 중국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농축수산업임업 평가

■ 한·중 FTA 발효 이후 對중국 농축수산업임업 전체 수출은 이전 동기대비 7.8% 증가하여 같은 기간 對세계 수출증가율(5.5%)보다 높고, 발효 이전 5개년 평균증가율(對중국 2.5%, 對세계 1.9%)보다도 높아 한·중 FTA로 인한 수출증가효과가 있다고 보임.⁴⁾

- 한·중 FTA 발효 이후 對중국 농축수산업임업 수출은 총액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증가율(7.8%) 또한 對세계 수출증가율을 크게 상회함. 다만 축임산물은 수출실적이 저조했음.⁵⁾

4) 對세계 평균증가율 산출 시 중국을 제외하고 계산하더라도 정성적인 평가는 달라지지 않음.

5)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산물에서는 채소류(2015년 기준 24.1% 차지)의 수입의존도가 25.5%로 확대되었고, 축산물(2015년 기준

- 발효 이후 對세계 수입증감률과 발효 전 5년 평균 수입증감률을 고려하더라도, 중국의 對한국 농축수산업 총수출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보임.

그림 5. 對중국 및 對세계 농축수산업 수출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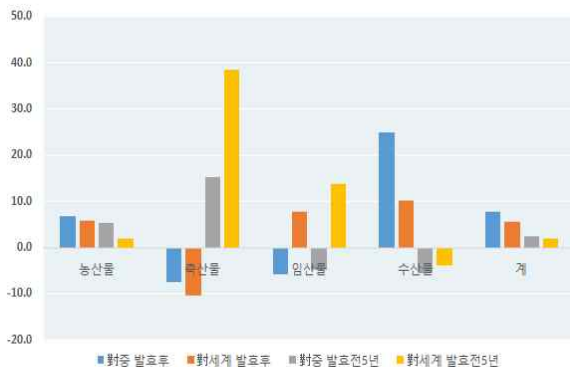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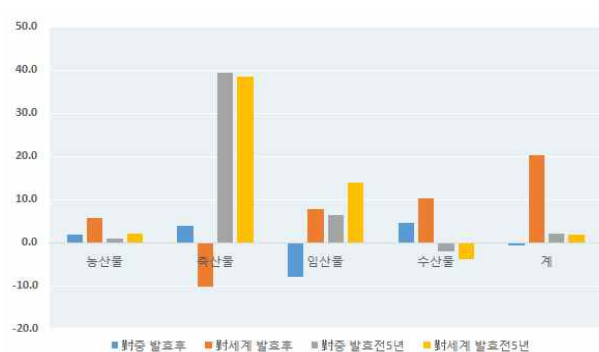


그림 6. 對중국 및 對세계 농축수산업 수입증감률
(단위: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라. 광업·제조업 평가

1) 주요 수출품목별 한국의 對중국 수출변화율과 중국의 對세계 수입변화율

■ 한·중 FTA 발효 이후, 한국의 對세계 총수출규모가 하락하는 가운데 한국의 對중국 광업 및 제조업 분야의 수출규모가 전반적으로 동반 하락하였음.

- 한국의 對중국 광업제조업 분야 수출품목 중, 특히 전자집적회로(HS 8542), 액정디바이스(HS 9013), 전화기(HS 8517) 등 전자·통신 제품 관련 중간재 수출이 감소함.
 - o 중국경제의 중간재 부품에 대한 자급률이 향상되어 가공무역 및 중간재 수입수요가 감소함.
 - *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비중⁶⁾: ('07) 38.5% → ('10) 30% → ('14) 26.8% → ('15) 26.6%
 - o 한국의 對중국 투자는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고, 한국기업의 중국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비중(한국의 對중국 투자의 약 80%) 또한 한·중 FTA 발효 전후(2014~16년)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중간재 부품에 대한 현지조달 비중 또한 늘었음을 의미함.
 - o 또한 對중국 주요 중간재 수출부품의 가치사슬 변화로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생산기지 이전이 발생하였음.⁷⁾
- 한·중 FTA 양허에서 초민감품목으로 지정된 자동차(HS 8703)의 경우, 발효 후 對중국 수출실적이 저조함.
 - o 국내기업들의 해외생산 증가에 따른 수출대체와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중국의 수입 감소에서 기인함.⁸⁾

57.2%)은 수입이 소폭 하락하였으며, 임산물에서 석제품(35.4%)은 큰 변동이 없으나 합판류와 가구류는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수산물에서는 어류(50.1%)가 증가세를 보임.

6) 산업은행(2016), 「최근 對중국 수출감소의 원인과 대응방안」, Weekly KDB Report. (11월 14일)

7) KOTRA(2016. 5. 27), 보도자료 참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對중국 상위 30개 품목별로 분석해보면, 세계적인 무역둔화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품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對한국 상위 30개 품목(HS 4단위, 2015년 기준)의 수입증가율과 동 품목의 對세계 수입증가율을 비교·분석해본 결과, 총 17개 품목(57%)에 대해 한국의 對중국 수출실적이 양호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표 4 참고, 부록 부그림 1-1과 글상자 1 참고).

표 4. 한·중 FTA 발효 이후 주요 품목별 중국의 수입 현황

(단위: 천만 달러)

상위30개 수출품목(2015년 기준)			중국의 對한국 수입			중국의 對세계 수입			부그림 1-1
순위	HS4	품목명	2015년 (A)	2016년 (B)	증감률 (%)	2015년 (A)	2016년 (B)	증감률 (%)	영역
1	8542	전자집적회로	4,425	4,215	-4.7	18,399	18,441	0.2	VI
2	9013	액정 디바이스	1,412	1,089	-22.9	3,805	3,100	-18.5	V
3	8517	전화기	726	557	-23.3	3,862	3,634	-5.9	V
4	2902	환식탄화수소	544	527	-3.2	1,394	1,261	-9.6	IV
5	2710	석탄	373	322	-13.8	1,232	906	-26.4	IV
6	8708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305	345	13.3	1,904	2,026	6.4	II
7	8471	비전기식의 공업용 노와 오븐	260	173	-33.3	2,123	2,052	-3.3	V
8	8473	기계 부분품과 부속품	244	204	-16.5	1,359	1,073	-21.0	IV
9	854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240	188	-21.6	2,447	2,228	-8.9	V
10	8486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230	167	-27.5	1,049	1,149	9.5	VI
11	8534	인쇄회로	181	146	-19.2	995	835	-16.2	V
12	8525	라디오·텔레비전용 송신기기	175	71	-59.6	795	495	-37.7	V
13	3901	에틸렌의 중합체	165	144	-12.5	1,265	1,123	-11.2	V
14	2901	비환식탄화수소	150	152	1.0	375	338	-10.0	III
15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	138	118	-14.7	587	469	-20.1	IV
16	9001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138	130	-5.9	597	523	-12.5	IV
17	3920	플라스틱제 기타	126	122	-3.6	554	514	-7.3	IV
18	8479	기타 기계류	118	128	8.3	764	782	2.3	II
19	3907	폴리아세탈수지	118	109	-7.1	685	611	-10.8	IV
20	3903	스티렌의 중합체	116	100	-14.4	426	369	-13.3	V
21	8536	전기회로기기	110	110	0.1	1,165	1,132	-2.8	III
22	2713	석유코크스 및 석유아스팔트	106	73	-31.1	205	127	-38.2	IV
23	7210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101	101	-0.6	210	191	-8.8	IV
24	3824	조제점결제	92	90	-2.6	503	482	-4.3	IV
25	8507	축전지	90	92	1.9	343	318	-7.3	III
26	8529	라디오·텔레비전용 부분품	86	129	49.3	602	682	13.2	II
27	9031	측정용의 기기와 윤곽 투영기	81	71	-12.4	719	796	10.7	VI
28	8703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	80	9	-88.2	3,688	3,505	-5.0	V
29	7403	정제한 동과 동합금	76	51	-32.9	1,715	1,459	-15.0	V
30	2804	수소 화가스 및 기타 비금속원소	71	87	23.1	202	208	2.9	II

주: 1) 가독성을 위해 품목명은 단순화하였으며 자세한 명칭은 HS 코드를 참고.

2) 수출액은 해당연도 1~10월의 월별 수출액의 평균(월자료).

3) 증감률 = (B-A) / A.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한국의 對중국 수출실적 상대적 양호] 중국의 對세계 수입이 감소할 때 평균 이상의 수출실적을 거둔 품목으로는 환식탄화수소, 석탄, 기계 부분품과 부속품, 프로필렌의 중합체 등이 있음.
- [한국의 對중국 수출실적 상대적 저조] 중국의 對세계 수입이 감소할 때 평균 이하의 수출실적을 거둔 품목으로는 액정디바이스, 전화기, 비전기식의 공업용 노와 오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이 있음.
- 비환식탄화수소와 축전기 품목은 한국의 對중국 수출실적이 매우 양호한 반면, 전자집적회로,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윤곽 투영기 등은 실적이 매우 저조함.

2) 주요 수입품목별 한국의 對중국 수입변화율과 한국의 對세계 수입변화율

■ 한국의 對세계 총수입규모가 하락하는 추세에서 품목별로 분석해보면, 중국의 對한국 수출실적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품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對중국 수입에서 상위 30개 품목(HS 4단위, 2015년 기준)의 수입증가율을 동 품목별 對세계 수입증가율과 비교·분석해 본 결과, 총 9개 품목(30%)의 수출실적이 양호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표 5 참고, 부록 부그림 1-2와 글상자 2 참고).

표 5. 한·중 FTA 발효 이후 주요 품목별 한국의 수입 현황

(단위: 천만 달러, %)

상위 30개 수입품목(2015년 기준)			한국의 對중국 수입			한국의 對세계 수입			부그림 1-2
순위	HS4	품목명	2015년 (A)	2016년 (B)	증감률 (%)	2015년 (A)	2016년 (B)	증감률 (%)	영역
1	8517	전화기	701	514	-26.7	977	970	-0.7	V
2	8542	전자집적회로	683	676	-1.0	2,645	2,463	-6.9	IV
3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	258	305	18.6	413	463	12.1	II
4	9013	액정 디바이스	191	125	-34.3	292	222	-23.9	V
5	8544	전기절연도체	175	176	1.0	226	227	0.6	II
6	854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158	146	-7.5	371	344	-7.4	V
7	7208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140	105	-25.3	282	234	-17.2	V
8	7308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	118	110	-7.1	168	125	-25.6	IV
9	8534	인쇄회로	93	77	-17.3	198	179	-9.6	V
10	8504	변압기 전지형 변화기와 유도차	90	83	-8.1	190	177	-6.5	V
11	8473	기계 부분품과 부속품	88	119	34.7	191	230	20.4	II
12	8708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87	86	-0.9	290	321	11.0	VI
13	8528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	86	71	-17.6	116	117	1.0	VI
14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80	72	-10.2	135	116	-14.1	IV
15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	68	65	-4.8	186	181	-3.1	V
16	7210	철 평판압연제품	67	76	13.9	89	95	6.3	II
17	8443	인쇄기 부분품과 부속품	66	58	-11.2	124	115	-7.0	V
18	4202	트렁크 등 이와 유사한 용기	65	65	-0.9	161	166	3.2	VI
19	9401	의자와 그 부분품	64	62	-2.9	92	90	-2.6	V
20	8543	기타의 전기기기	58	23	-60.2	164	90	-45.0	V
21	6802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	58	58	0.8	63	65	3.1	I
22	7228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55	52	-5.0	71	68	-3.6	V

표 5. 계속

상위 30개 수입품목(2015년 기준)			한국의 對중국 수입			한국의 對세계 수입			영역
순위	HS4	품목명	2015년 (A)	2016년 (B)	증감률 (%)	2015년 (A)	2016년 (B)	증감률 (%)	
23	9002	기타의 광학용품	54	27	-49.4	99	82	-17.5	V
24	8531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	54	35	-35.2	81	63	-22.7	V
25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 압축기와 팬	49	53	8.4	199	187	-6.1	III
26	62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	48	48	-0.3	86	88	2.0	VI
27	8901	순항선 및 이와 유사한 선박	48	35	-26.4	145	125	-14.2	V
28	7606	알루미늄의 판 쉬트 및 스트립	46	23	-50.8	90	66	-26.2	V
29	8501	전동기와 발전기	43	50	18.1	135	145	7.8	II
30	7225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42	50	18.4	59	66	12.8	II

주: 1) 가독성을 위해 품목명은 단순화하였으며 자세한 명칭은 HS 코드를 참고.

2) 수입액은 해당연도의 1~10월의 월별 수입액의 평균(월자료).

3) 증감률 = (B-A) / A.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중국은 전자집적회로와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 압축기와 팬 품목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트렁크 등 이와 유사한 용기 품목에서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중국의 수출실적이 저조한 품목으로는 전화기, 액정디바이스 등이 있음.

3) 한·중 FTA 발효 이후 관세율인하에 따른 주요 수출실적 변화

- 한·중 FTA의 관세인하율과 발효 후 이행기간 10개월간의 상대적 수출증감률을 비교하여 수출품목(HS 8단위)의 실적을 평가함(부표 1-1 참고).⁹⁾

- [관세인하 품목]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서 상위 50개 주요 품목 중, 중국측의 관세인하 혜택을 받은 품목(HS 8단위)은 총 27개이며, 이 중 15개 품목(55.6%)의 수출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중국의 對한국 수입이 감소한 경우 동 품목에 대한 對세계 수입의 감소폭보다 작음).

- 항공등유(상대증감률 0.89%), 환식탄화수소(5.72%), 석유코크스(6.3%), 조제점결제(1.58%), 비환식탄화수소(22.8%), 차체 부분품과 부속품(11%), 나프타(12%), 미용·화장품(24%) 등 주로 석유화학·기계류 관련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 하락으로 수출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것으로 판단됨.

- [관세무변동 품목]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서 상위 50개 주요 품목 중, 관세감소율이 0인 품목(HS 8단위)은

9) 한국의 對중국 수출을 HS 8단위 품목으로 더 세분하여 상위 50개 수출품목을 선별한 후(2015년 기준 한국의 對중국 총수출액의 약 71% 비중), 동 품목에 대해 관세율 적용에 따른 수출실적을 살펴보고자 함. 중국의 수입기준관세와 발효 2년 차 한·중 FTA 실행관세 차이를 관세인하율로 일컬음(부표 1-1 참고). 발효 이후, 품목별로 중국의 對한국 수입증가율과 동 품목에 대한 對세계 수입증가율을 차감하여 상대증감률을 산출함. 중국측 관세인하에 따라 계산된 상대증감률 값을 바탕으로, 상대증감률 값이 클수록 한국의 對중국 수출성고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음. 다만 기준관세가 무관세인 품목이 존재하고 양허에서 제외된 품목이 있는바, 이를 구분하여 품목별 수출성고에 대한 평가를 하였음.

총 23개이며, 이 중 10개 품목(43.5%)에서 수출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중국의 對한국 수입이 감소한 경우 동 품목에 대해 對세계 수입의 감소폭보다 작음).

- 기본관세와 한·중 FTA 2년 차 실행관세율의 변동이 없어 관세감소율이 0인 품목 중, 메모리(0.44%), 파라자 일렌(6.21%), 기계 부분품과 부속품(4.86%), 증폭기(5.86%), 반도체 장비 부분품(3.14%) 등 품목의 수출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관세인하 혜택을 본 품목이 관세무변동 품목에 비해 수출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어, **한·중 FTA에 의한 긍정적 효과**라고 판단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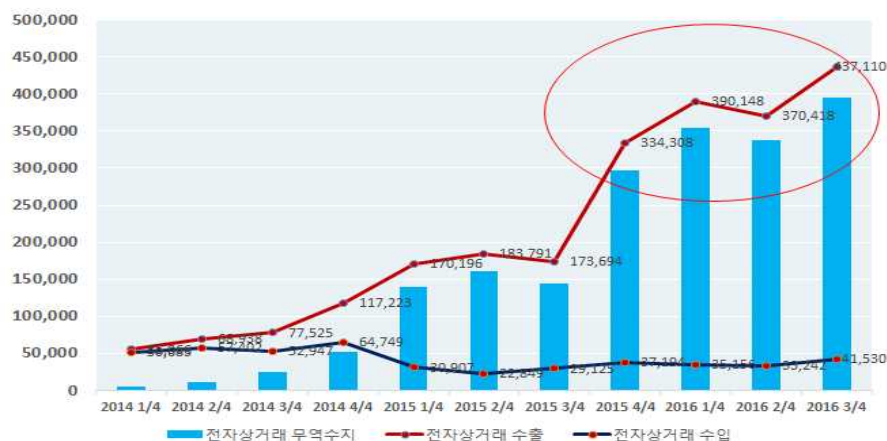
3. 전자상거래 평가

■ 한·중 FTA 발효 후, 한국의 對중국 전자상거래¹⁰⁾ 수출규모는 전년동기대비 급격히 증가한 반면, 수입규모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전자상거래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증가**하였음.

- 2015년 1/4~3/4분기 對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약 5,300억 원 규모였으나, 2016년 1~3분기에는 약 6,700억 가량 증가한(전년동기대비 127%) 1조 2천억 원 규모에 다다름.
- 2015년 1/4~3/4분기 對중국 전자상거래 수입액은 약 820억 원 규모였으나, 2016년 1/4~3/4분기에는 약 270억 가량 증가한(전년동기대비 32.6% 증가) 1,090억 원 규모임.
- * 한·중 FTA에서 중국측의 특송화물 면세제도 도입(기준금액 200달러)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특송화물에 대한 특례조항 등 통관 원활화를 위한 다수의 조항을 포함시킨 결과가 가시적인 성과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7. 한국의 對중국 전자상거래 수출 및 수입 변화

(단위: 백만 원)



자료: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0)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정의하는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사업체'는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를 의미하고, 거래수단이 컴퓨터 및 네트워크 기반(온라인)을 통해서만 상품 및 서비스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뜻함.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전자상거래는 OECD 또는 USITC에서 지칭하는 국가간 전자상거래보다는 좁은 의미의 개념임.

■ 품목별로 살펴보면, FTA 발효 이후 對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에서 전년동기대비 화장품(165.5%), 의류 및 패션관련 상품(51%), 아동·유아용품(103.2%), 스포츠·레저용품(195.2%), 가전·전자통신기기(104.4%) 등의 거래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발효 이후 수출 하락품목으로는 음식료품(26.6%), 음반·비디오·악기(33%) 등이 확인됨.

■ 품목별로 對중국 전자상거래 수입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가전·전자·통신기기(96.2%), 아동·유아용품(124.6%), 생활용품 및 자동차용품(49.8%) 등의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관측됨.

- 발효 이후 수입 하락품목으로는 서적(23.1%)과 소프트웨어(59.5%)가 있음.

4. 서비스·투자 평가

가. 서비스 교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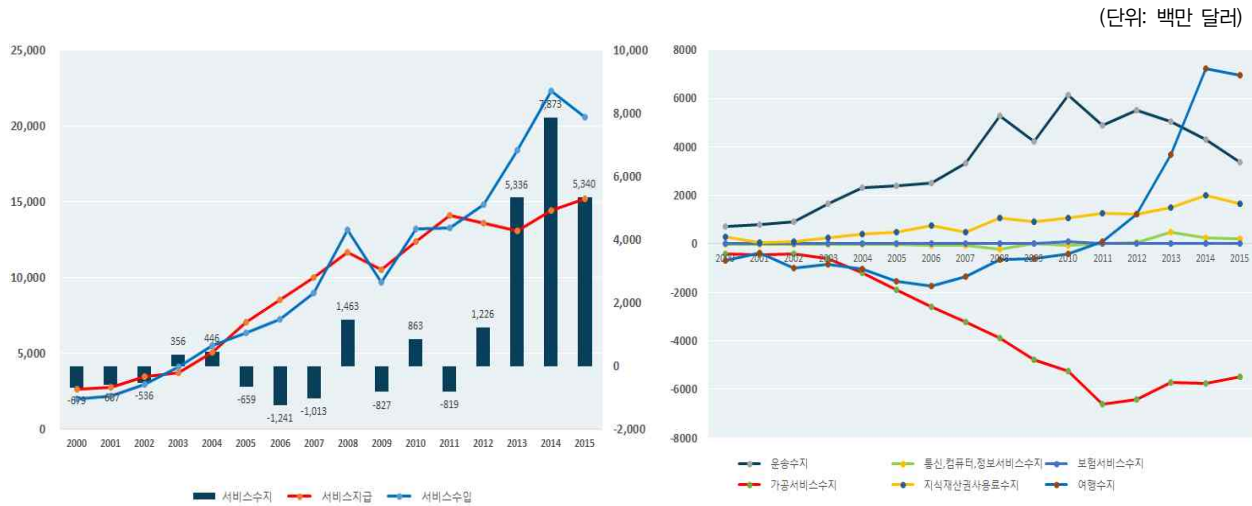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2015년까지 서비스교역은 크게 증가하였고,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된 2012년 이후 한국의 對중국 서비스수지 흑자폭이 커지고 있는 추세임.

- 2000년 對중국 서비스수입은 약 2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서비스수입은 약 205억 달러로 10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對중국 서비스지급도 2000년에는 약 26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으나 2015년에는 152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하였음.
- 2012년 이후 한국의 對중국 서비스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이고, 특히 한·중 FTA가 타결된 2014년에는 약 79억 달러 규모의 흑자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가공서비스수지가 큰 적자폭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수지와 운송수지, 지적재산권 사용료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하였고, 특히 여행수지 흑자가 서비스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으로 보임.

- 가공서비스수지는 2000년 이후 적자였고 그 적자폭 또한 지속적으로 커지는 추세이며, 2011년을 기점으로 다소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으나 2015년에도 여전히 약 5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음.
- 여행수지는 2011년까지 적자였으나 그 이후 흑자세로 돌아서서, FTA가 타결된 2014년에는 72억 달러 흑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도 그 수준을 유지하였음.
- 운송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였으나 2010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그림 8. 한국과 중국 간 서비스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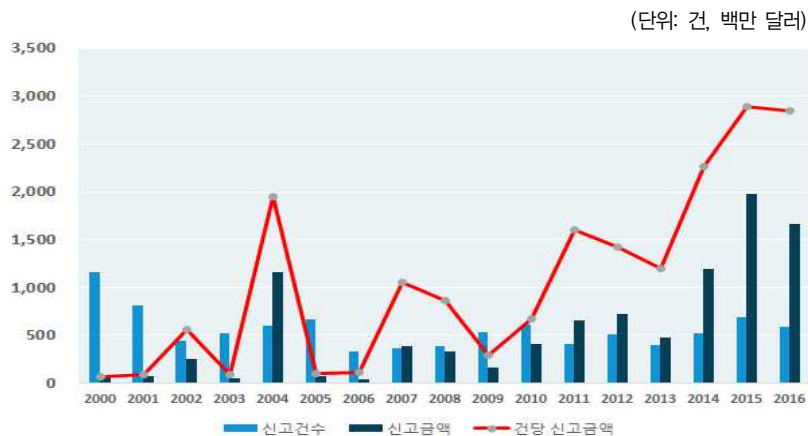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중국의 對한국 투자¹¹⁾

■ 중국의 對한국 투자는 2009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한·중 FTA 발효를 기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건당 신고금액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중국의 對한국 투자는 2004년 약 12억 달러 유입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한·중 FTA가 발효되는 2015년 약 20억 달러 유입으로 최고치를 갱신함.
- 중국으로부터의 투자 신고건수는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2009년 이후 신고금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 결과 건당 신고금액이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었음.

그림 9. 중국의 對한국 투자 신고건수와 신고금액(2000~16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DB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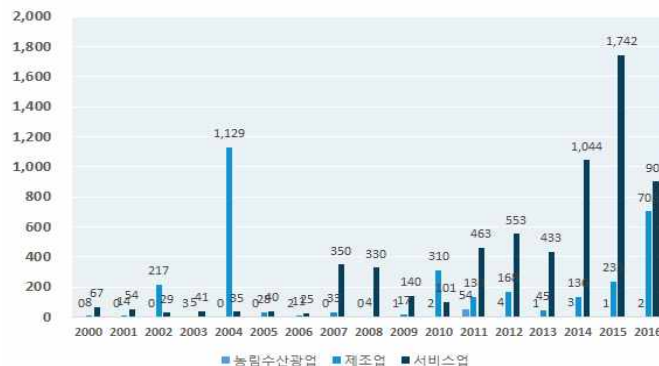
11) 본고에서는 투자의 경우 기대효과에 의한 선제적 투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FTA 발효 전 투자 추이에도 초점을 맞추고 분석을 수행함.

■ 산업별로 중국의 對한국 투자를 살펴보면, 중국의 對한국 투자는 서비스업에 치우쳐 있으나 2013년 이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축수산업 및 광업에 대한 투자는 미미함.

- 2014년 중국의 對한국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약 10.4억(87.8%) 달러였고, 2015년에는 약 17.4억(88.1%)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 1~10월까지 약 9억(54.3%) 달러 정도 투자되었음.
- o 최근 5년(2012~16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정보에 의하면, 등록된 중국기업은 도소매(유통), 부동산임대, 비즈니스서비스 등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중국의 한국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2004년 한 해 약 11억 달러 정도 유입되었으나, 그 이후 투자실적이 저조하다가 최근 3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중 FTA 발효 이후 2016년 1~10월까지 약 7억 달러(42.5%) 유입되었음.

그림 10. 산업별 중국의 對한국 투자(2000~16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정리하면 중국의 對한국 투자는 2009년 이후 신고금액 기준과 건당 신고금액 기준 모두에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의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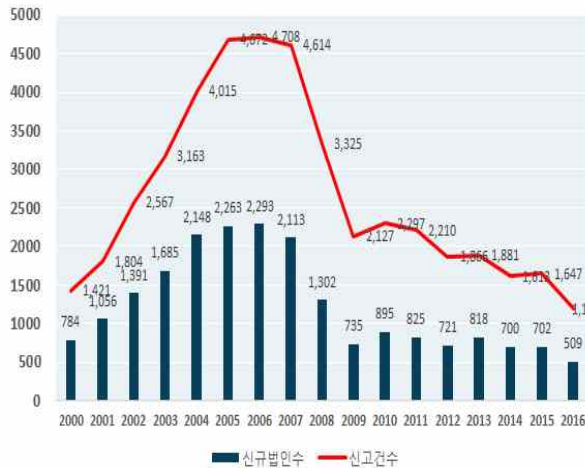
다. 한국의 對중국 투자

■ 한국의 對중국 투자는 신규법인수나 신고건수가 2006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반면, 건당 신고금액은 2009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2년 한·중 FTA 협상 개시 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안정세를 찾는 모습임.

- 對중국 투자건수는 200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06년 신규법인수와 신고건수가 각각 2,293건과 4,708건에 이른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비록 신고건수가 2006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건당 신고금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2년 한국의 對중국 건당 신고금액이 약 35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현재 약 25억 달러 규모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11. 한국의 對중국 투자 신규법인수와 신고건수

(단위: 건, 개)



자료: 수출입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12. 한국의 對중국 투자 신고금액과 건당 신고금액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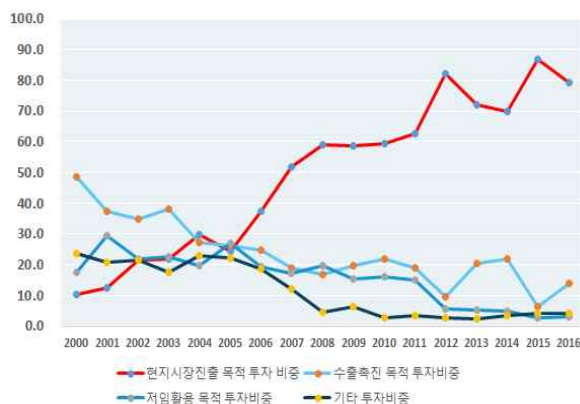
■ 투자형태별로 한국의 對중국 투자를 살펴보면, 한국의 對중국 투자는 2000년 초중반까지 수출촉진 목적에 집중된 반면, 2000년대부터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설립형태로는 신설법인에 대한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추세 또한 지속되었음.

- 한국의 對중국 투자는 2000년에 수출촉진 목적의 투자가 50%에 육박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2000년대 중반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현지시장 진출 목적 투자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한·중 FTA 협상 전후와 한·중 FTA 발효 전후로는 80%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임.
- 2000년 한국기업의 對중국 투자는 대부분 신설법인 설립에 집중되어왔는데, 2012년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한 해에는 약 60억 달러 규모(90.1%)가 신설법인 설립에 투자되었고, 현재 8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13. 한국의 對중국 투자 형태(2000~16년)

(단위: %)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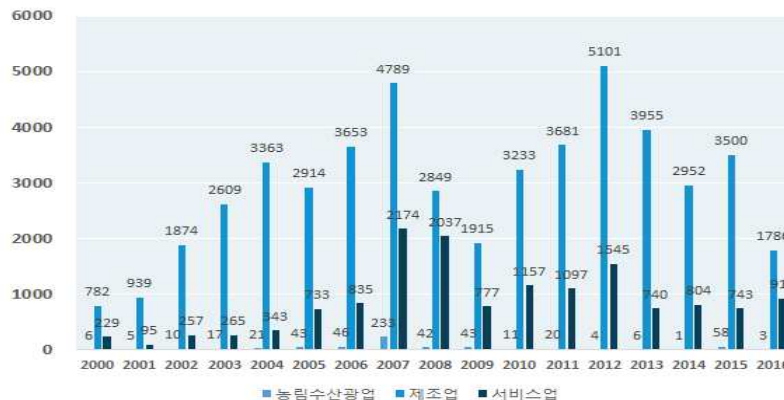


자료: 수출입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산업별로 한국의 對중국 투자를 살펴보면, 한국의 對중국 투자는 중국의 對한국 투자와는 대조적으로 제조업에 치우쳐 있는데, 2009년 이후 약 30억 달러 이상 규모가 제조업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2016년에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임.
- 한국의 對중국 투자는 2000년 초부터 제조업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07년을 기점으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2009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서 한·중 FTA 협상 개시해인 2012년에는 약 51억 달러 규모 제조업 투자가 발생하였음.
- 한국의 對중국 서비스 투자는 2007~08년 동안 약 21억 달러 규모였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 2016년에는 최근 3년(2013~15년) 평균 서비스 투자에 비해 약 1.5억 달러 정도 증가한 것으로 관측됨.

그림 14. 산업별 한국의 對중국 투자(2000~16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수출입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정리하면 한국의 對중국 투자는 2009년 이후 신규법인수나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건당 신고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대부분의 한국기업의 對중국 투자가 제조업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며, 중국의 내수시장 선점을 목표로 기존법인지분을 인수하기보다는 법인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임.

5. 정책 시사점

■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준비

- 앞선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이 서비스 교역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조속히 개시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3월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양국간의 서비스투자 확대를 위해 2단계 서비스투자 협상을 연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이후 논의가 진전된 바 없음.

- 중국은 한·중 FTA 체결 이후 뉴질랜드나 다른 나라와는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한바, 우리나라도 중국과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통해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준비함에 있어 양국 투자자 보호와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필요

■ 전자상거래 시장 선점 및 규범 논의 활성화

- 발효 후 전년동기대비 對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이 100% 이상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한·중 간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해 양자간 전자상거래 관련 인프라 확충과 규제협력 노력이 필요함.

■ 비관세조치에 따른 통상마찰 대비

- 농축수산업 분야 및 광업·제조업 분야에 걸친 중국 측 비관세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바, 원만한 해결과 개선을 위한 대책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양국통상 대표간 긴밀한 대화를 통해 상호협력체제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한·중 FTA 활용률 제고와 이행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필요

- 산업별로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함.
- 충실한 이행을 위해 분야별 위원회/작업반을 연1회 이상 개최하여 FTA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FTA 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양국간 노력이 필요함.
- 높은 수준의 지재산(TRIPS) 보호,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및 다자환경협약 준수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불법어업과 같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 [경제협력] 경제협력에 관한 양국의 이해증대와 상호협력에 관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함.

- 우리의 새만금, 중국의 염성, 연태 등 한·중 산업협력단지 건설 구체화, 광동성 해주 추가건 등 양국간 기업유치 방안 유치 독려 등 협조가 필요함.
- 인프라, 플랜트 등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등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을 독려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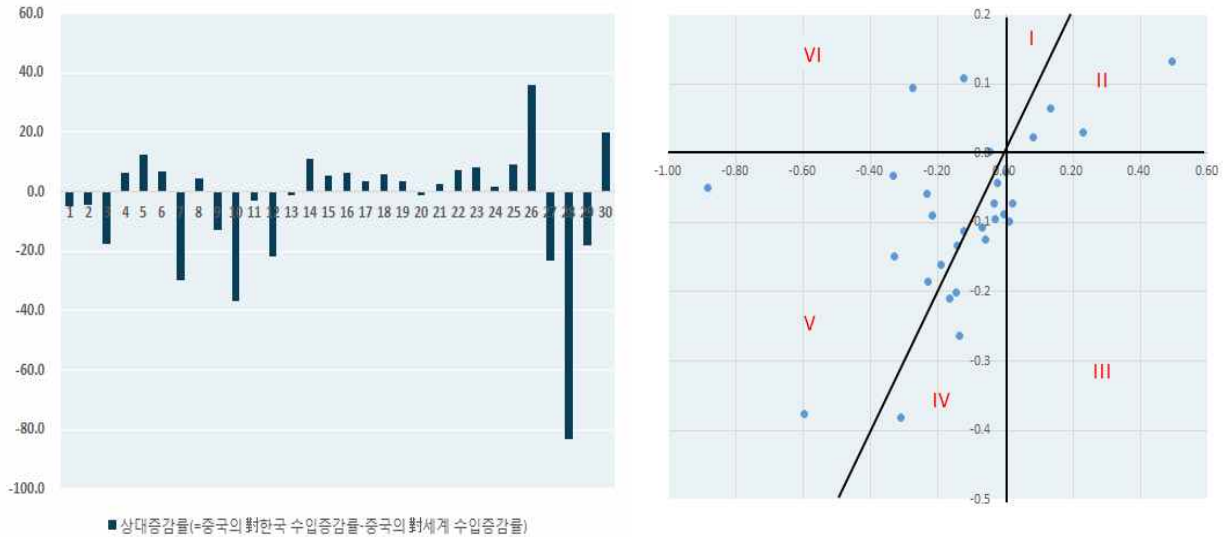
■ 향후 관세율 하락에 따라 분야별 경쟁심화가 예상되는데, 수출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FTA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함.**

- 단기적인 수출확대 전략보다는 제품차별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중장기적 정책 마련이 필요함.

[부록 1] 한국의 對중국 수출입 변화 분석

부그림 1-1. 주요 수출품목별 중국의 對한국 수입변화율과 중국의 對세계 수입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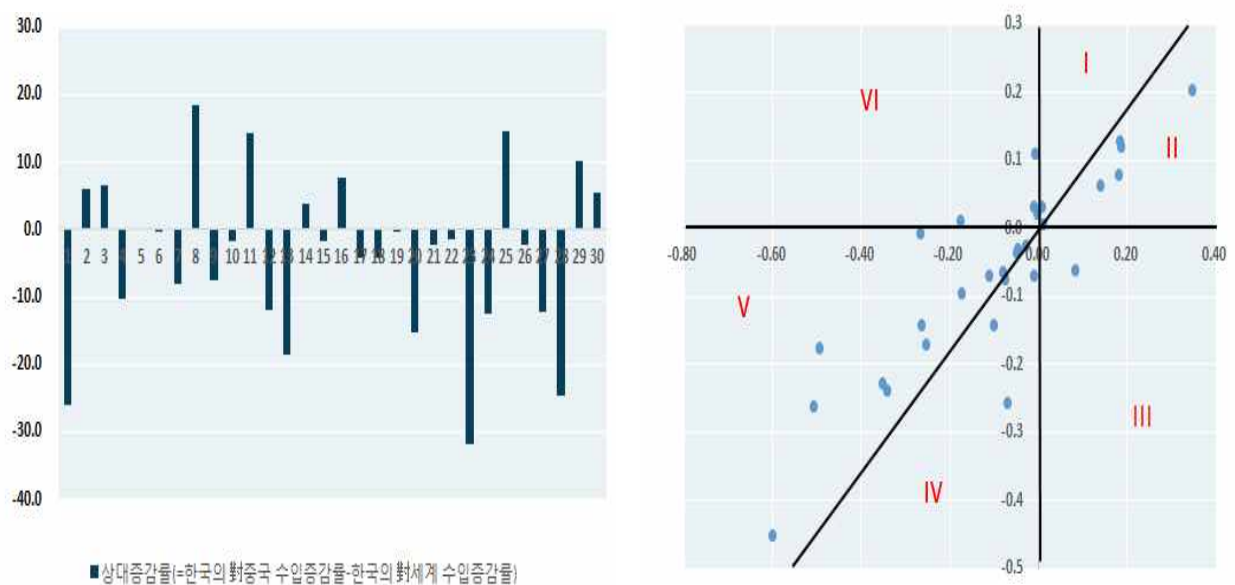
(단위: %)



- 주: 1) 증감율은 2015년 1~10월 월누계액과 2016년 1~10월 월누계액의 변화율임.
 2) 왼쪽 그림의 가로축은 표 5의 순위를 나타냄.
 3) 오른쪽 그림의 가로축은 중국의 對한국 수입변화율이고, 세로축은 중국의 對세계 수입변화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그림 1-2. 주요 품목별 한국의 對중국 수입변화율과 한국의 對세계 수입변화율

(단위: %)



- 주: 1) 증감율은 2015년 1~10월 월누계액과 2016년 1~10월 월누계액의 변화율을 뜻함.
 2) 왼쪽 그림의 가로축은 표 6의 순위를 나타냄.
 3) 오른쪽 그림의 가로축은 한국의 對중국 수입변화율이고, 세로축은 한국의 對세계 수입변화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글상자 1. 한국의 對중국 수출변화에 대한 판단 및 2차평면 영역 설명

■ 對중국 수출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15년 기준 수출품목(HS 4단위) 상위 30개를 선정하고, 동일품목에 대해 對중국 수입증가율과 중국의 對세계 수입증가율을 비교함.

- 해당품목에서 중국의 對세계 수입이 감소한 경우(품목별 시장불황), ① 동 품목의 對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것을 추세에 상응하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상대적 감소율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② 동 품목의 對중국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수출성고가 좋은 것으로 판정할 수 있음.
- 해당품목에서 중국의 對세계 수입이 증가한 경우(품목별 시장활황), ① 동 품목의 對중국 수출이 감소하면 수출성고가 나쁜 것으로 판정하고 ② 동 품목의 對중국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추세에 상응하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역시 상대적 증가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림 15]의 2차 평면에서 X축은 중국의 對한국 수입증가율을 나타내고, Y축은 중국의 對세계 수입증가율을 나타냄. 여기에 중국의 對한국 수입증가율과 중국의 對세계 수입증가율이 같아지는 45도 선을 보조적으로 그리면 [그림 15]의 2차 평면에 총 6개의 영역이 구분될 수 있음(1사분면에 2개, 2사분면에 1개, 3사분면에 2개, 4사분면에 1개의 영역이 나타남).

- (1) 영역 I (품목별 시장활황, 한국의 對중국 수출실적 상대적 저조): 중국의 對세계 수입증가율이 한국의 對중국 수출증가율보다 큰 경우임.
- (2) 영역 II (품목별 시장활황, 한국의 對중국 수출실적 상대적 양호): 한국의 對중국 수출증가율이 중국의 對세계 수입증가율을 상회하는 경우임.
- (3) 영역 III (품목별 시장불황, 한국의 對중국 수출실적 매우 양호): 중국의 對세계 수입이 감소했을 때, 한국의 對중국 수출이 증가한 경우임.
- (4) 영역 IV (품목별 시장불황, 한국의 對중국 수출실적 상대적 양호): 한국의 對중국 수출감소율이 중국의 對세계 수입 감소율을 밑도는 경우임.
- (5) 영역 V (품목별 시장불황, 한국의 對중국 수출실적 상대적 저조): 한국의 對중국 수출감소율이 중국의 對세계 수입감소율보다 큰 경우임.
- (6) 영역 VI (품목별 시장활황, 한국의 對중국 수출실적 매우 저조): 중국의 對세계 수입이 증가했을 때, 한국의 對중국 수출이 감소한 경우임.

즉 45도 선에서 2사분면 바깥쪽으로 멀어질수록 수출실적이 안 좋은 것으로, 4사분면 바깥쪽으로 멀어질수록 수출실적이 좋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글상자 2. 한국의 對중국 수입변화에 대한 판단 및 2차평면 영역 설명

■ 글상자 1에서 설명한 수출변화 분석과 유사한 방식으로 발효 후 한국의 對중국 수입변화를 점검해볼 수 있음. [그림 16]의 2차 평면에서 X축은 한국의 對중국 수입증가율을 나타내고, Y축은 한국의 對세계 수입증가율을 나타냄. 여기에 한국의 對중국 수입증가율과 한국의 對세계 수입증가율이 같아지는 45도 선을 보조적으로 그림. 이를 바탕으로 [그림 16]의 2차 평면에 총 6개의 영역이 구분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함.

- (1) 영역 I (품목별 시장활황, 중국의 對한국 수출실적 상대적 저조): 한국의 對세계 수입증가율이 중국의 對한국 수출증가율보다 큰 경우임.
- (2) 영역 II (품목별 시장활황, 중국의 對한국 수출실적 상대적 양호): 중국의 對한국 수출증가율이 한국의 對세계 수입증가율을 상회하는 경우임.
- (3) 영역 III (품목별 시장불황, 중국의 對한국 수출실적 매우 양호): 한국의 對세계 수입이 감소했을 때, 중국의 對한국 수출이 증가한 경우임.
- (4) 영역 IV (품목별 시장불황, 중국의 對한국 수출실적 상대적 양호): 중국의 對한국 수출감소율이 한국의 對세계 수입감소율을 밑도는 경우임.
- (5) 영역 V (품목별 시장불황, 중국의 對한국 수출실적 상대적 저조): 중국의 對한국 수출감소율이 한국의 對세계 수입감소율보다 큰 경우임.
- (6) 영역 VI (품목별 시장활황, 중국의 對한국 수출실적 매우 저조): 한국의 對세계 수입이 증가했을 때, 중국의 對한국 수출이 감소한 경우임.

즉 45도 선에서 2사분면 바깥쪽으로 멀어질수록 중국의 對한국 수출실적이 안 좋은 것으로, 4사분면 바깥쪽으로 멀어질수록 對한국 수출실적이 좋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부표 1-1. 한·중 FTA 발효 후, 상위 50개 수출품목의 관세율 인하에 따른 중국의 수입증감률 변화

(단위: %)

순위	HS8 (중국)	품목명	관세율				對한국	對세계	상대 증감률	관세 무변동 품목	관세 인하 품목
			기본 관세	양허 유형	2년차 실행 관세	관세 감소율	수입 증감률	수입 증감률			
1	85423200	메모리	0	0	0	0	2.44	2.01	0.44	0.44	
2	85423100	프로세서 및 컨트롤러	0	0	0	0	△14.21	△1.59	△12.62	△12.62	
3	90138030	액정디스플레이	5	10-A*	5	0	△23.33	△20.16	△3.17	△3.17	
4	85177030	무선전화기 부분품	0	0	0	0	△17.97	△7.26	△10.72	△10.72	
5	85423900	전자회로	0	0	0	0	△11.56	2.28	△13.84	△13.84	
6	29024300	파라자일렌	2	E	2	0	1.62	△4.58	6.21	6.21	
7	84733090	기계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16.54	△21.40	4.86	4.86	
8	84717010	디스크 드라이버	0	0	0	0	△31.35	8.02	△39.37	△39.37	
9	85258013	기타 텔레비전 카메라	주3	20	주4	.	△61.67	△45.96	△15.71		△15.71

부표 1-1. 계속

순위	HS8 (중국)	품목명	관세율				대한민국		상대 증감률	관세 무변동 품목	관세 인하 품목
			기본 관세	양허 유형	2년차 실행 관세	관세 감소율	수입 증감률	수입 증감률			
10	27101911	항공등유	9	0	0	9	△26.83	△27.73	0.89		0.89
11	85423300	증폭기	0	0	0	0	4.97	△0.70	5.68	5.68	
12	85340090	인쇄회로	0	0	0	0	△20.72	△18.81	△1.91	△1.91	
13	29025000	환식탄화수소	2	20	1.8	0.2	△9.41	△15.13	5.72		5.72
14	27132000	석유코크스	8	15	6.93	1.07	△31.12	△37.41	6.30		6.30
15	39021000	프로필렌의 중합체	6.5	E	6.5	0	△17.47	△25.98	8.52	8.52	
16	38249099	조제점결제	6.5	15	5.63	0.87	△2.69	△4.27	1.58		1.58
17	29012200	비환식탄화수소	2	10	1.6	0.4	1.80	△21.00	22.80		22.80
18	87084091	차체 부분품과 부속품	10	PR-20	9.2	0.8	15.74	4.64	11.09		11.09
19	27101220	나프타	6	15	5.2	0.8	△8.02	△20.08	12.05		12.05
20	85419000	반도체 장비 부분품	0	0	0	0	△3.80	△6.94	3.14	3.14	
21	85076000	리튬이온 축전지	12	PR-20	11.04	0.96	0.72	△6.68	7.40		7.40
22	85177090	무선전화기 기타	0	0	0	0	△63.77	△6.90	△56.87	△56.87	
23	85414010	발광다이오드	0	0	0	0	△39.25	△26.44	△12.81	△12.81	
24	84798999	기타 기계류	0	0	0	0	10.80	3.67	7.12	7.12	
25	39074000	폴리카보네이트	6.5	15	5.63	0.87	△11.45	△13.44	1.98		1.98
26	74031111	정제한 구리	2	0	0	2	△33.40	△16.02	△17.37		△17.37
27	28046190	비금속원소	4	15	3.47	0.53	16.67	2.02	14.65		14.65
28	39033090	스티렌의 중합체	6.5	20	5.85	0.65	△13.05	△13.56	0.52		0.52
29	84863090	평판디스플레이 기타	0	0	0	0	△40.02	△19.00	△21.02	△21.02	
30	90012000	편광재료를 만든판	8	10	6.4	1.6	13.99	△1.62	15.61		15.61
31	39012000	폴리에틸렌	6.5	PR-8	6.29	0.21	△20.98	△11.00	△9.98		△9.98
32	90019090	광섬유 기타	8	10	6.4	1.6	△32.31	△29.72	△2.59		△2.59
33	85369011	접속함	0	.	0	0	4.02	△0.81	4.83	4.83	
34	27101993	윤활유	6	15	5.2	0.8	△15.06	△5.40	△9.66		△9.66
35	85340010	인쇄회로	0	0	0	0	△15.92	△13.04	△2.88	△2.88	
36	72104900	비합금강평판압연제품	4	E	4	0	6.25	0.78	5.47	5.47	
37	39199090	판플라스틱 기타	6.5	15	5.63	0.87	△19.72	△12.21	△7.51		△7.51
38	33049900	미용 화장품	6.5	PR-20	5.98	0.52	57.19	33.22	23.97		23.97
39	90139020	액정디바이스 기타	8	15	6.93	1.07	△15.77	△4.99	△10.78		△10.78
40	29012100	에틸렌	2	10	1.6	0.4	2.36	2.45	△0.10		△0.10
41	29053100	에틸렌글리콜	5.5	E	5.5	0	△44.89	△37.28	△7.61	△7.61	
42	84081000	선박추진용엔진	5	PR-50	4	1	△43.49	△33.46	△10.03		△10.03
43	87082990	차량용 부분품	10	PR-10	9.6	0.4	1.39	0.67	0.72		0.72
44	39206200	폴리로 만든것	6.5	15	5.63	0.87	△24.01	△20.71	△3.30		△3.30
45	39013000	에틸렌의 중합체	6.5	PR-8	6.29	0.21	0.96	0.32	0.64		0.64
46	29022000	벤젠	2	15	1.73	0.27	△25.51	△9.18	△16.33		△16.33
47	85322410	세라믹 유전체	0	0	0	0	△34.03	△20.66	△13.38	△13.38	
48	87084099	기어박스와 부분품	10	E	10	0	70.75	31.59	39.16	39.16	
49	90314990	광학용기기 기타	0	0	0	0	△15.00	3.06	△18.06	△18.06	
50	90318090	측정용기기 기타	5	10	4	1	△7.78	9.44	△17.22		△17.22

주: 1) 수입액은 1~10월 수입액의 평균값(월자료).

2) 점유율은 해당 연도의 1~10월 수입액을 기준으로 對세계 수입에서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3) 세트당 가격이 5천 달러 이하인 경우 35%, 가격이 5천 달러 초과 시 3%+세트당 12,960위안.

4) 세트당 가격이 5천 달러 이하인 경우 31.5%, 가격이 5천 달러 초과 시 2.7%+세트당 11,664위안.

5) 2012년 HS 코드 90138030하에 분류된 LCD 모듈의 관세는 이행 1년 차부터 이행 8년 차까지 기준세율(5%)이 유지됨. 관세는 이행 9년 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 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됨.

6) PR-"XX":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 이행 5년 1월 1일부터 기준관세율의 (100-"XX")% 유지

7) E: 양허제외(기준관세율 유지).

8) 품목명은 단순화하였으며 자세한 명칭은 HS코드를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록 2] 서비스투자 산업별 상세¹²⁾

1) 한국의 對중국 서비스투자

■ 한국의 對중국 서비스투자는 2013년에 급속하게 하락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1/4~3/4분기 한국의 對중국 서비스투자는 9.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8.7% 증가함.
- 한국의 對중국 전체 해외직접투자 대비 서비스투자의 비중은 2008년에 39.6%로 최고점을 기록하였지만, 이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그러나 한·중 FTA 발효 이후 2016년 3/4분기까지의 서비스투자 비중은 34.3%로 급속히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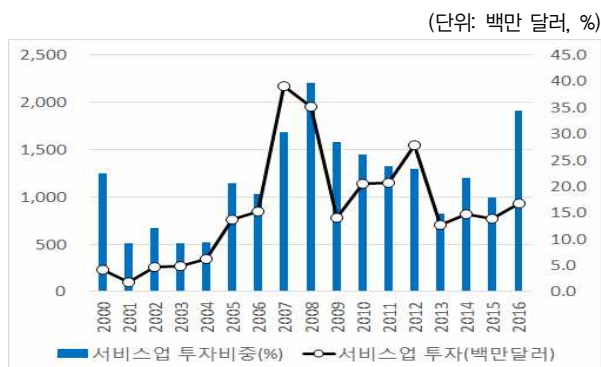
* 이는 중국의 FDI 유치정책의 변화와 대외개방이 맞물려 서비스투자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임.¹³⁾

■ 한국의 對중국 서비스투자는 도·소매업, 금융·보험 등의 산업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00~08년까지는 對중국 서비스투자에서 도·소매업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08년 이후에 對중국 금융·보험 산업이 증가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중 FTA 발효 후 2016년에는 對중국 서비스투자 중 도·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1%, 금융·보험은 34.2%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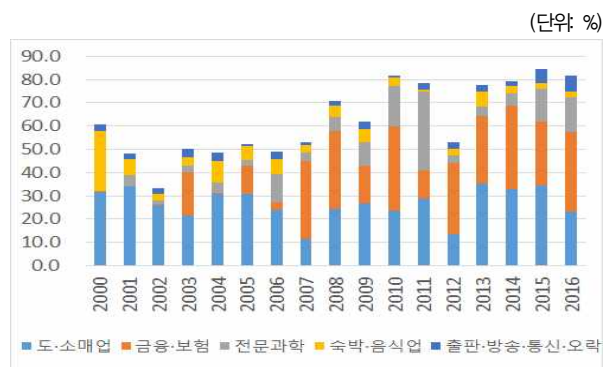
*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에 따라 금융·보험 관련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¹⁴⁾

부그림 2-1. 한국의 對중국 서비스 투자 현황



주: 1) 2016년은 3/4분기까지의 데이터임.
2) 투자금액은 신고금액 기준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그림 2-2. 한국의 對중국 서비스 산업별 투자 비중



주: 1) 2016년은 3/4분기까지의 데이터임.
2) 투자금액은 신고금액 기준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2) 가까운 미래에 한·중 양국간 서비스투자의 확대를 위해 2단계 서비스투자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고에서는 한·중 서비스투자자에 대한 한층 세부적인 점검내용을 수록함.

13) 이치훈(2016), 「외국인의 대중국 직접투자 트렌드와 대응방안」, 중국전문가포럼 CSF(검색일: 2016. 12. 1).

14) KOTRA(2015),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중국)」.

■ 對중국 서비스 산업별 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산업은 2006년 이후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임.

- 특히 금융·보험, 전문·과학 분야의 투자는 2006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한·중 FTA 발효 후 2016년에는 각각 3.1억 달러, 1.3억 달러를 기록함.
 - * 금융·보험업의 투자가 증가한 것은 국내은행이 중국으로 진출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출범도 이를 견인한 것으로 보임.
 - * 전문·과학 분야의 투자가 증가한 것은 지주회사 설립이 활발하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의 Head Quarter가 많이 설립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¹⁵⁾
- 이외에 도·소매업, 출판·방송·통신·오락 분야의 투자도 한·중 FTA 이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부표 2-1. 對중국 서비스산업별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총합계	도·소매업	금융·보험	전문·과학	숙박·음식업	출판·방송·통신·오락	기타
2000~05년	326	95	24	8	27	8	164
	(100.0)	(29.2)	(7.4)	(2.6)	(8.2)	(2.3)	(50.4)
2006~10년	1,377	281	390	115	60	27	506
	(100.0)	(20.4)	(28.3)	(8.3)	(4.3)	(1.9)	(36.7)
2011~15년	996	263	264	124	28	31	285
	(100.0)	(26.4)	(26.6)	(12.4)	(2.8)	(3.2)	(28.6)
2016년 (1/4~3/4분기)	927	215	317	138	22	65	170
	(100.0)	(23.1)	(34.2)	(14.9)	(2.4)	(7.0)	(18.3)

주: 1) 투자금액은 신고금액 기준이며, 평균치임.

2) () 안은 對중국 서비스 총투자액 대비 비중임.

3) 기타는 건설, 운수, 부동산임대,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협회 및 단체 및 개인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교육서비스,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對중국 서비스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에 대해 투자목적별 추이를 보면, 중국 현지진출 목적 투자가 대부분임.

- 도·소매업 투자의 증가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금융·보험업의 경우 대형 은행의 중국진출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 * 2016년 1/4~3/4분기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도·소매업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71%)하며, 대기업은 금융·보험 투자의 97%를 차지함.

15) KOTRA(2009), 「최근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 Global Investment Report, 제09-5호, p. 8.

부표 2-2. 對중국 서비스산업별 투자(투자목적별)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총합계	도·소매업				총합계	금융·보험			
		수출촉진	저임활용	현지진출	기타		수출촉진	저임활용	현지진출	기타
2000~05년	182	29	15	33	104	42	5	0	36	1
	(100.0)	(16.2)	(8.3)	(18.3)	(57.3)	(100.0)	(12.0)	0.0	(85.6)	(2.4)
2006~10년	373	40	15	203	114	388	0	0	388	0
	(100.0)	(10.8)	(4.0)	(54.6)	(30.6)	(100.0)	0.0	0.0	(100.0)	0.0
2011~15년	293	52	4	200	37	264	0	0	264	0
	(100.0)	(17.6)	(1.4)	(68.3)	(12.6)	(100.0)	0.0	0.0	(100.0)	0.0
2016년 (1~3분기)	216	80	1	131	4	317	0	0	317	0
	(100.0)	(37.0)	(0.5)	(60.6)	(1.9)	(100.0)	0.0	0.0	(100.0)	0.0

주: 1) 투자금액은 신고금액 기준이며, 평균치임.

2) () 안은 對중국 서비스 총 투자액 대비 비중임.

3) 기타는 건설, 운수, 부동산·임대,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협회 및 단체 및 개인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교육서비스,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중국의 對한국 서비스투자

■ 중국의 對한국 서비스투자는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6년 1/4~2/4분기는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기록함.

- 2016년 1/4~2/4분기 한국의 對중국 서비스투자는 2.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2% 감소함.
- 중국이 한국에 투자한 전체금액 대비 서비스 투자의 비중은 2015년에 88%로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지만, 한·중 FTA 발효 후 2016년 1/4~2/4분기에는 24%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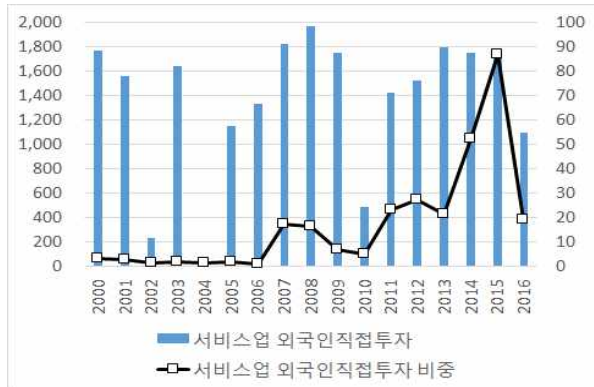
■ 중국의 對한국 서비스투자는 2006년까지는 도·소매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이후에는 전문·과학, 부동산·임대, 금융·보험 등의 산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2000~06년까지는 도·소매업이 서비스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2006년 이후 부동산·임대업 투자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한·중 FTA 발효 이후에는 전문·과학, 방송관련 산업의 투자가 많이 증가함.

* 한·중 FTA 발효 후 2016년에는 중국의 對한국 서비스투자 중 전문·과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40.5%로 가장 높으며, 부동산·임대업이 17.6%, 출판·방송·통신·오락이 17.3%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함.

부그림 2-3. 중국의 對한국 서비스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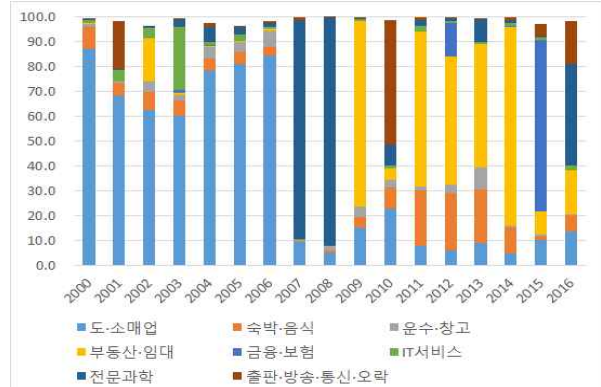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주: 1) 2016년은 2/4분기까지의 데이터임.
2) 투자금액은 신고금액 기준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작성

부그림 2-4. 중국의 對한국 서비스산업별 투자 비중

(단위: %)



주: 1) 2016년은 2/4분기까지의 데이터임.
2) 투자금액은 신고금액 기준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중국의 對한국 서비스 산업별 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1~15년간 부동산·임대, 금융·보험에서 투자가 두드러지고, 한·중 FTA 이후에는 전문·과학, 부동산·임대, 방송관련 부분의 투자가 두드러짐.

- 2011~15년에는 중국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한국으로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임.
- 한·중 FTA 발효 후 2016년에는 전문·과학 분야가 9,500만 달러로 전체 서비스투자에서 40.5%를 차지함.
- 한·중 FTA 이후로 중국으로부터 경영컨설팅과 같은 Head Quarter사들이 국내에 많이 진출한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임대 및 방송관련 투자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 중국의 부동산·임대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제주도로, 제주도 면적의 대부분이 이미 중국인의 소유로 나타났으며, 방송 관련 투자의 경우 중국의 자본투자로 인한 방송·영화 콘텐츠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KIEP

부표 2-3. 對중국 서비스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총합계	도·소매업	숙박·음식	운수·창고	부동산·임대	금융·보험	IT 서비스	전문과학	출판·방송·통신·오락	기타
2000~05년	44 (100.0)	33 (74.4)	3 (6.4)	1 (2.4)	1 (2.3)	0 (0.3)	3 (6.1)	1 (2.0)	2 (4.3)	1 (1.9)
2006~10년	189 (100.0)	23 (12.2)	4 (2.0)	4 (1.9)	22 (11.6)	0 (0.0)	1 (0.5)	124 (65.7)	11 (5.8)	1 (0.4)
2011~15년	847 (100.0)	67 (8.0)	91 (10.8)	17 (2.1)	357 (42.2)	256 (30.2)	11 (1.3)	14 (1.7)	22 (2.6)	11 (1.3)
2016년 (1/4~2/4분기)	234 (100.0)	32 (13.7)	15 (6.3)	2 (0.7)	41 (17.6)	0 (0.1)	4 (1.9)	95 (40.5)	40 (17.3)	4 (1.9)

주: 1) 투자금액은 신고금액 기준이며, 평균치임.
2) () 안은 對중국 서비스 총 투자액 대비 비중임.
3) 기타는 기타 서비스, 아웃소싱서비스 등이 포함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